

도레이새한, 바른 외국기업 우수상 수상

10월25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에 도레이새한이 제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조업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도레이새한은 1999년 글로벌 첨단소재기업인 일본 Toray와 새한이 공동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과감한 사업구조 혁신과 기술투자로 품질향상 및 안정적 노사협력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고객 니즈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활동으로 설립 1년 만인 2000년부터 흑자를 실현했고 2005년 매출액은 6610억원에 달했다.

한편, 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은 한국후지제록스가 수상했으며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야후코리아가 선정됐다.
<최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27>